

미국 여행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해외여행 구조 재편

'26. 06. 29.(월) / 뉴욕지사

□ 분석 배경 및 목적

○ 미국 여행비용 상승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 구조 변화

- 2026년 현재 미국의 여행 시장은 항공료와 호텔, 렌터카 비용 등 여행 전반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환경 속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임.
-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여행 수요가 감소하는 형태가 아니라 소비자의 여행 선택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을 비교하는 기준에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면서 해외여행 선택 비중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 과거 미국 여행 시장은 국내 중심 구조가 강하게 유지되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소비 예산 내에서 여행 횟수를 조정하거나 여행 목적지를 해외로 전환하는 방식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여행 소비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가치 판단 기반의 선택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임.
- 또한 미국은 세계 최대 해외여행 시장으로서 글로벌 관광 수요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의 해외여행 목적지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관광국의 전략 수립에 있어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구조임.

□ 주요 내용

○ 미국 여행비용 상승에 따른 소비 구조 변화

- 미국 내 여행비용 상승은 여행 수요 자체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기보다 소비 구조를 변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임. 항공료와 숙박비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소비자는 동일한 예산 내에서 여행 횟수를 줄이거나 상대적으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목적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소비 구조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는 국내 여행 수요 일부가 해외여행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흐름임.
- 특히 미국 내 주요 관광지의 숙박비 상승은 해외여행과의 가격 격차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 여행보다 해외여행이 더 효율적인 선택으로 인식되는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변화는 여행 수요 자체의 감소라기보다는 여행 소비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으로 해석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구조임.
- 미국 호텔 평균 일일 요금 추이(2018-2025)



* (출처) oysterlink

○ 미국 해외여행 구조 변화 및 목적지 집중

- 미국 해외여행 시장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특정 국가로 여행 수요가 집중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태임. 이는 여행 선택 기준이 단순한 거리나 접근성이 아니라 비용 효율성과 경험 가치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근거리 목적지와 장거리 목적지가 동시에 성장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흐름임.
- 근거리 목적지의 경우 이동 비용이 낮고 체류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요가 유지되고 있으며, 장거리 목적지는 문화 경험과 여행 가치 중심 소비가 확대되면서 선택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구조는 여행 수요가 균등하게 분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목적지로 집중되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흐름임.
- 미국 해외여행 목적지 선호도(2025)

U.S. Citizens Outbound Travel: CY 2025					
Number of Trips	2025	% share	2024	% share	% change
Europe	23,339,445	21.4%	22,235,839	20.9%	5.0%
Caribbean	11,339,823	10.4%	11,337,403	10.7%	0.0%
Asia	7,576,424	6.9%	6,747,207	6.3%	12.3%
South America	3,293,183	3.0%	3,304,041	3.1%	-0.3%
Central America	5,204,053	4.8%	5,009,966	4.7%	3.9%
Oceania	951,490	0.9%	903,572	0.8%	5.3%
Middle East	3,543,245	3.2%	3,342,726	3.1%	6.0%
Africa	907,408	0.8%	882,064	0.8%	2.9%
Mexico (Air)	13,973,356	12.8%	13,807,586	13.0%	1.2%
Mexico (Other)	25,707,244	23.5%	24,723,396	23.2%	4.0%
Canada	13,426,137	12.3%	14,082,775	13.2%	-4.7%
Total	109,261,808	100.0%	106,376,575	100.0%	2.7%

* (출처) Tourism Analy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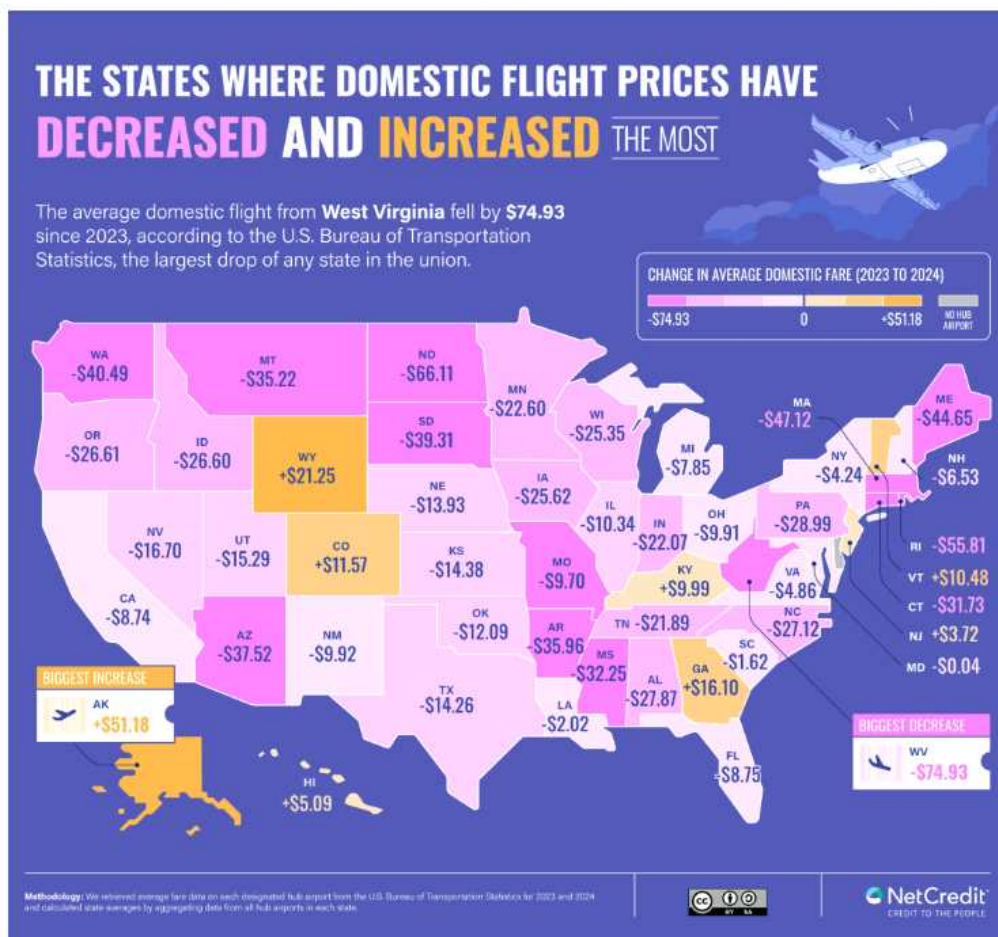
○ 미국 해외여행 주요 목적지 구조

- 미국 소비자의 해외여행 목적지는 특정 국가 중심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와 같은 근거리 목적지가 존재하고 있음. 이들 국가는 이동 거리와 비용 측면에서 가장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작용하면서 전체 해외여행 수요에서 가장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는 구조임.
- 또한 캐리비안 지역은 휴양지 리조트 중심의 여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통합형 여행 수요 증가와 함께 안정적인 성장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 유럽 주요 국가는 문화 및 프리미엄 여행 중심 구조로 장거리 여행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목적지는 지속적인 고정 수요를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구조임.
-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가장 두드러진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환율 효과와 함께 여행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국가로 인식되면서 미국 소비자의 선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는 상태임. 전체적으로 이러한 목적지 분포는 미국 해외여행 수요가 특정 국가로 집중되는 구조적 재편을 보여주는 흐름임.

○ 미국 해외여행 소비 행동 변화

- 미국 소비자의 해외여행 행동은 단순한 수요 증가 구조가 아니라 소비 방식 자체가 변화하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음. 여행 빈도는 과거 대비 일부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1회 여행 당 소비 수준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구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여행 횟수를 줄이는 대신 여행 목적지를 보다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소비 행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구조임.

- 또한 여행 선택 기준은 기존의 거리 중심 구조에서 비용 대비 가치 중심 구조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거리 여행과 장거리 여행이 동시에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임. 이러한 변화는 여행이 단순 소비가 아니라 경험 가치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임.
- 미국 주별 국내 항공권 가격 변화(2023~2024)



* (출처) business traveler

○ 목적지 경쟁 구조 변화

- 글로벌 관광시장 내 목적지 경쟁 구조는 점차 복합적인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상태임. 기존에는 관광 매력도가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였으나 현재는 환율, 체류 비용, 항공 접근성, 콘텐츠 경쟁력 등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목적지 간 경쟁이 더욱 세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일본과 유럽 주요 국가, 캐리비안 지역은 미국 소비자의 해외여행 선택에서 핵심 수혜 지역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여행 선택 기준이 단순 관광 중심에서 경험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임.

○ 관광시장 및 정책 시사점

- 미국 해외여행 구조 변화는 한국 관광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은 일본과 유럽 주요 국가와 경쟁하는 위치에 있으며, 단순 관광 자원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와 체험 요소 중심의 목적지로 인식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는 상태임.
- 특히 K-컬처 기반 관광 수요는 미국 시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단순 방문 관광이 아니라 체험 관광 및 라이프스타일 관광으로 확장되는 구조임. 이에 따라 한국 관광 경쟁력은 가격 요소가 아니라 경험 가치와 콘텐츠 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향후 미국 해외여행 시장 대응 전략은 단순 홍보 중심이 아니라 여행 선택 구조를 반영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문화 콘텐츠 기반 관광 상품 강화와 체험 관광 콘텐츠 확대가 중요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구조임.

□ 종합 결론

○ 미국 해외여행 수요 구조 변화 및 목적지 집중 현상

- 미국 해외여행 시장은 비용 상승 환경 속에서도 단순한 수요 감소가 아니라 구조적 재편이 발생하는 상태이며, 특정 국가로의 수요 집중 현상이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여행 선택 기준이 비용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이며, 결과적으로 글로벌 관광시장 경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태임.
- 또한 이러한 변화는 한국 관광시장에도 전략적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향후 미국 소비자의 여행 선택 구조를 중심으로 한 분석이 더욱 중요한 정책 변수로 작용하는 구조임.

< 출처 >

<https://data.bls.gov/timeseries/>

<https://www.bls.gov/cpi/factsheets/transportation.htm>

<https://wttc.org/research>

<https://www.ustravel.org/research>

<https://str.com/>

<https://www.expedia.com/research/>

<https://oysterlink.com/spotlight/average-daily-hotel-room-rates/>

<https://www.trade.gov/feature-article/december-and-annual-2024-total-international-travel-volume>

<https://www.busesstraveller.com/news/flight-cost-index-usa/>

<https://partner.expediagroup.com/en-us/resources/research-insights/2025-traveler-value-index>

<https://tourismanalytics.com/usoutbound.html>

붙임: 미국 주요 경제지표 현황 및 관광 동향. 끝.

붙임

미국 주요 경제지표 현황 및 관광 동향

※ 각 지표의 수치는 수시 업데이트 되어, 현재 공표된 수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지표

- (생산자 물가지수)

<2025-2026년 월별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월	25.6월	25.7월	25.8월	25.9월	25.11월	25.12월	26.1월	26.2월	26.3월	26.4월	26.5월
Index	148.17	149.36	149.21	149.78	150.71	151.47	152.19	153.23	148.03	154.01	1154.82
전월대비 증감률	△0.1%	0.7%	△0.1%	0.4%	0.5%	0.5%	0.5%	0.7%	△2.7%	1.4%	0.53%

* Final demand price indexes 기준

- (소비자 물가지수)

<2025-2026년 월별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월	25.6월	25.7월	25.8월	25.9월	25.11월	25.12월	26.1월	26.2월	26.3월	26.4월	26.5월
Index	322.56	323.05	323.98	324.80	324.12	324.05	325.25	326.79	326.79	327.8	328.6
전월대비 증감률	0.3%	0.2%	0.4%	0.3%	△0.21%	△0.02%	0.2%	0.3%	0%	0.6%	0.24%

* BLS Consumer Price Index 기준

- (소비자 심리지수) '26년 5월 기준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는 52으로 하락국면임.

<2025-2026년 월별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CSI)>

월	25.6월	25.7월	25.8월	25.9월	25.10월	25.11월	25.12월	26.1월	26.2월	26.3월	26.4월	26.5월
Index	60.7	61.8	58.2	55.1	53.6	51.0	52.9	56.4	56.6	56.6	57.1	52.0

* 출처: 미시건대학교(UMCSSENT) 및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FRED)

- (고용동향) 실업률 및 비농업 고용자 수 변화

<2025-2026년 월별 미국 실업률 및 비농업 신규 고용>

월	25.6월	25.7월	25.8월	25.9월	25.11월	25.12월	26.1월	26.2월	26.3월	26.4월	26.5월
실업률	4.1%	4.2%	4.3%	4.4%	4.6%	4.4%	4.3%	4.4%	4.3%	4.0%	4.3%
비농업 신규 고용(명)	+147,000	+79,000	+22,000	+119,000	+64,000	+50,000	+130,000	-92,000	+178,000	+185,000	+139,000

* 출처: 미국 노동통계국(BLS)

○ 업계동향

- (아웃바운드 수요) '26.5월 기준, 해외여행을 다녀온 미국인은 약 29백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4% 감소하며 '25년 3.6%증가한것에 대비하여 단기적으로 뚜렷한 조정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됨.

< 2024-2026 미국 아웃바운드 통계 [출처 : NTT, U.S Outbound to World Regions] > 미국

구분	2024	2025	2026
연간	106,376,575	109,261,808	-
1~5월	39,770,373	41,188,951	29,069,792
전년대비	8.57%	3.57%	△29.42%

□ 주요 경쟁국 미국인 입국통계

국가명	2026년 5월	전년 동기(월)	증감율	비고
대한민국	151,605	132,324	15%	
일본	333,700	331,933	7%	
베트남	82,930	64,892	27.8%	'26년 4월 기준
태국	71,010	68,251	4%	
필리핀	91,182	97,811	-6.8%	'26년 4월 기준
홍콩	100,168	84,296	18.8%	'26년 4월 기준
대만	72,373	65,710	10.1%	'26년 4월 기준
싱가포르	60,189	54,197	11.1%	
말레이시아	23,073	223,665	-2.5%	
인도네시아	37,017	35,776	3.5%	'26년 4월 기준

* 2026년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 데이터 확인 불가

** 출처: 각 국가별 관광청 홈페이지

< 데이터 출처 >

<https://www.eia.gov/dnav/pet/hist/rbrted.htm>

<https://www.tsa.gov/travel/passenger-volumes>

<https://www.bls.gov/cpi/factsheets/airline-fares.htm>